



제7회 경덕진 국제 도자박람회 방문 보고서



利川市議會

목차

I. 방 문 개 요	2
II. 방문 주요일정	3
III. 방문국가 개요	4
IV. 방문내용 및 발굴정책	6
V. 견학후기	23

□ 방문목적

- 우리시의 국외 자매 교류도시인 중국 경덕진에서 개최되는 『제7회 국제도자 박람회』를 시찰하고 자매도시로서의 우의를 다짐
- 개막식 참여와 주요 도자시설 관람을 통해 이천도자기 축제와 이천도자기를 위한 정책 발굴

□ 방문기간 : 2010. 10. 16 ~ 2010. 10. 20(4박 5일)

□ 방문국가 : 중국(경덕진, 무석, 북경, 상해)

□ 방문인원

연번	소 속	직	위	성 명	비 고
1	이천시의회	의	장	김 인 영	
2	"	부 의	장	이 광 희	
3	"	의회운영위원장		김 문 자	
4	"	자치행정위원장		임 영 길	
5	"	산업건설위원장		성 복 용	
6	"	의	원	김 학 원	
7	"	의	원	김 용 재	
8	"	의	원	정 종 철	
9	"	의	원	한 영 순	
10	의회사무과	과	장	이 주 복	
11	"	의 정 팀	장	윤 희 동	
12	"	행 정 7	급	이 민 수	

II

방문 주요 일정

방문일자	시 간	내 용
10월 16일 (토)	09:30	·인천공항 출발
	10:30	·상해공항 도착
	10:30 ~ 15:00	·점심 및 이동
	15:00 ~ 18:00	·무석 하이닉스반도체 시찰 ·하이닉스반도체 임·직원 간담
	18:00 ~ 21:30	·공항 이동 및 대기 등
	21:30 ~ 23:30	·무석공항 ⇒ 북경공항
	00:30	·숙소 도착
10월 17일 (일)	08:30	·조식 후 숙소 출발
	09:30 ~ 12:00	·민용도자기 예술관 시찰 (중국 전지역의 도자기 집합 전시장)
	12:00 ~ 17:05	·공항 이동 등
	17:05 ~ 17:05	·북경공항 ⇒ 경덕진 공항
	19:30 ~ 20:30	·경덕진시 주최 환영 만찬회 참석
	21:00	·숙소 도착
10월18일 (월)	08:30	·조식 후 호텔 출발
	09:00	·제7회 경덕진국제도자박람회 개막식 참석
	10:00 ~ 12:00	·국제도자박람회 관람
	12:00	·점심
	13:00 ~ 14:30	·경덕진 고요지(古窯地) 방문
	14:30 ~ 16:30	·경덕진 도자기 재래시장 시찰
	18:00 ~ 21:30	·환영 만찬회 참석 및 축하공연 관람
	22:00	·숙소 도착
10월19일 (화)	08:30	·조식 후 호텔 출발
	09:00	·도자대학 대학생 운영 전시장 관람
	10:00	·중국공예대사 방문(류원장 선생 업체)
	11:00	·가양도자기 방문(고대 도자기 재현 업체)
	12:00 ~ 22:30	·점심 및 구강 공항 이동 등
	22:30 ~ 23:50	·구강공항 ⇒ 상해공항
	00:50	·숙소도착
10월20일 (수)	08:30	·조식 후 호텔 출발
	09:30 ~ 11:30	·2010 상해엑스포 관람
	11:30 ~ 12:30	·점심
	12:30 ~ 14:30	·공항 이동
	19:20	·인천공항 도착
	22:00	·이천도착 및 해산

Ⅲ

방문국가 개요

□ 일반현황

- 위 치 : 아시아동부 동경105도, 북위35도
- 정부형태 : 인민공화제
- 국가원수 : 국가주석/총리 - 현총리 후진타오
- 수 도 : 북경
- 종 교 : 도교, 불교, 이슬람교(1~2%), 그리스도교(3%)
- 민족구성 : 한족(92%), 55개 소수민족
- 면 적 : 9,596,960km²
- 언 어 : 중국어
- 기 후 : 습윤, 건조, 대륙성기후(열대에서 냉대까지 다양한 기후)
- 1인당 GDP : 3,677 \$ (2009년 기준)
- 화폐단위 : 위엔화푼
- 행정구역 : 중앙정부에 직속된 31개 행정구역으로 나뉘며, 이 가운데 성이 22개, 소수민족 자치구 5개(내이멍구, 광시장족, 링사후이족, 신장웨이우얼족, 시짱(티벳) 직할시 3개(베이징, 상하이, 텐진), 특별자치구 1개(홍콩)
- 한국과 수교일 : 1992년 8월 24일

□ 역사

- 베이징원인 화석발견 : 1927년 베이징 서남쪽 약50km 저우커우텐에서 발견 약 35만년 전 인간이 정착함
- 은나라(BC18~12세기) : 청동기 문화 기반 왕조
- 진나라(BC221년) : 시황제의 중국 통일, 봉건제 폐지, 군현제 실시, 화폐도량형, 문자의 통일, 차이나(China)라는 영어이름도 진(Chin)에서 기원
- 한나라(BC202년) : 진나라를 멸하고 한나라 세움(종이 등 과학적 발전)
AD220년 한의 붕괴이후 혼란과 분열의 시대(위진남북조시대)
- 수나라(581~617년) : 중국의 재통일, 중요한 행정개혁을 이루었으나 무모한

군사적 원정으로 단명

- 당나라(618년) : 과거제도를 통해 전문 관료제도의 전성기 구가
- 송나라(960년) : 당 붕괴이후 70여년의 분열기(907~960년) 재통일 문치주의 채택 - 문관관료 정치기구 확립
- 원나라(1271년) : 몽골제국, 소수지배 민족으로 인한 민족문화 차별 정책으로 스스로 고립된 중국의 문명 제도에 완전히 동화 되지 못함
- 명나라(1368년) : 중앙집권 및 군주독재체제 확립, 쇄국정책(반외세감정)
- 청나라(1644년) : 만주족(여진족)의 왕조, 아편전쟁, 태평천국 운동 등 19C 중국은 비운의 연속
- 공화정 붕괴(1911년) : 쑨원의 지도아래 공화정부가 수립되었으나, 군벌주의에 의해 멸망
- 중화인민공화국 수립 : 1949. 10. 1 국민당과 중국공산당의 국·공 내전 결과 공산당의 승리로 중화인민공화국 수립

□ 문화

- 전통문화
 - 한족 : 단오절, 음력설(춘절)은 중국 최대의 명절
 - 몽골족 : 봄의 환생을 의미하는 명절 “사강사르” 음력12월23일
 - 티베트족 : 티베트曆 마지막 날 29일 악령을 쫓아내는 “주틀” 축제
- 현대사회
 - 월극(광동극)과 경극은 역사적 현실적 주제들을 기교어린 노래와 춤으로 구성한 원대의 가극 전통계승
- 불교문화
 - 한 때 불교가 유입되면서 불교 예술 발달 “둔황석굴”은 부처와 보살상의 벽면 부조가 수천 개씩 만들어져 중국 종교 예술의 극치를 보여줌
- 중국문학
 - 한자의 확립으로 BC 500년경 만들어진 “시경”은 중국의 가장 오래 된 고전 중의 하나이며, 당대는 한시의 황금기로 두보와 이백이 배출되었음

방문도시(4곳)



1. 무석(강소성)
2. 경덕진(강서성)
3. 북경
4. 상해

IV

방문내용 및 발굴정책

1일차 [2010. 10. 16(토)]

- 우리시의 국제 자매도시인 중국의 경덕진과 이천시는 도자 분야에서 가장 활발한 국제 교류를 이어 오고 있으며, 대한민국의 도자축제로 대표되는 이천시와 중국의 도자축제를 대표하는 경덕진은 매년 상호 인적·물적 교류를 통하여 빠르게 변모하고 있는 세계 도자 흐름과 보다 나은 세라믹 페스티벌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 이런 일환으로 이천시의회는 이번 제7회 경덕진 국제 도자박람회를 방문하게 되었으며, 특히 이번 경덕진 국제 도자박람회는 지난 7월에 출범한 제5대 이천시의회가 처음으로 방문하는 도자 박람회로써 그 어느 해 방문보다 방문지에 대한 사전 조사를 철저히 했으며, 4박 5일간의 일정 대부분을 중국의 도자기와 시설을 시찰하는 것으로 계획했다.
- 대부분의 사람들이 주말의 늦잠에 빠져 있을 10월 16일 토요일 이른 아침에 이천을 떠나, 방문단은 비록 인천공항을 출발한지 1시간이 조금 넘는 시간에

중국의 해돋이가 시작되는 상해에 도착하였지만 먼 옛 날 우리 조상들이 오직 자연의 힘에 의지하여 고려청자와 조선백자를 가득 싣고 중국 무역을 했을 생각을 하니 선조들의 치열한 기업가 정신이 어찌 존경스럽지 않을 수 있을까?



중국 방문일정을 시작하며(상해공항)



중국일정도 식후경(도착 후 점심)

- 그래서 일까 중국 방문 첫 날 일정에 포함되어 있는 무석시에 소재한 하이닉스 반도체 중국 법인을 향하는 2시간 내내 밥 설고 물 설은 먼 타국에서 땀 흘리고 있는 하이닉스 한국인 직원들의 노고에 절로 감사의 마음이 생긴다.
- 중국의 22개省 가운데 하나인 강소성 무석시에는 삼성과 함께 세계 반도체 시장을 석권하면서 이천시에 소재한 여러 기업체 가운데 대표 격인 하이닉스 반도체의 중국 법인이 있는 곳이다. 이천시의회의 이번 중국 주요 방문일정 중 하나가 하이닉스 반도체 중국 공장의 견학이었으며, 중국에서의 공식 일정이 하이닉스 반도체 방문부터 시작된 셈이다.



하이닉스반도체 관계자 브리핑



하이닉스반도체 전시관 관람

- 중국에서 하이닉스의 위상은 크게 네 가지로 압축할 수 있다고 한다. 첫 번째 중국 최대 반도체기업이며, 두 번째 최첨단 기술 보유기업, 세 번째 강소성에 소재한 최대 규모의 외자기업이며, 마지막으로 하이닉스가 중국 D램 시장 점유율 1위를 차지하고 있다는 회사 관계자의 설명이다.
- 중국내에서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국제기업으로 성장하고 있는 하이닉스는 2004년 8월 무석시와 투자계약을 체결 후 중국 진출을 시작했으며 그 배경으로는 급성장하고 있는 중국 반도체 시장을 선점하고, 날로 첨예하게 대립하는 국가 간 통상 문제를 원천적으로 해결하면서 현지 금융 및 행정 지원을 활용하기 위해서 라고 한다.



반도체 생산라인 견학(I)



반도체 생산라인 견학(II)

- 이번 하이닉스 중국 법인을 시찰하면서 느낀 점은 뒤에서 다시 한 번 언급하겠지만, 중국이 세계 최고의 반도체 기업 중 하나인 하이닉스를 무석시로 발 빠르게 유치하여 국부 창출의 기회로 잡은 것은, 과거 등소평이 외친 흑묘백묘(黑猫白猫)의 정신과 부국강병을 향한 중국인들의 강한 의지가 하이닉스로 하여금 총 52.6억불(2010년 7월말 기준)을 중국 법인에 투자하게끔 만든 힘의 원천이 아닌가 생각한다.
- 이런 맥락에서 볼 때 이천시의 더 큰 발전을 위해서는 우리 지역 경제의 커다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하이닉스 이천공장에 대한 투자와 성장이 간절하고 이를 실현시키기 위해 더 많은 노력이 필요함은 재론의 여지가 있을 수 없으리라.



하이닉스 홍보영상 관람



하이닉스 임직원과 간담회

- 약 1시간에 걸쳐 하이닉스 생산 공정 등을 시찰 후 하이닉스 본사에서 중국으로 파견 나온 임직원들(상무 1명, 부장 3명, 차장 6명)과의 간담회 시간이 마련되었다. 이 자리에 참석한 임직원들은 모두 하이닉스 이천공장에서 근무한 경력이 있고, 이천에 생활 기반을 두었던 경험이 있어서인지 이천시가 시급히 추진해야 할 현안사항을 꿰뚫고 있었다.
- 몇 년 후 하이닉스 이천공장으로 복귀하게 될 이들 임직원들의 이천 시정에 대한 대표적인 주문사항 중 하나가 전철의 조기완공과 자녀들이 양질의 교육을 받을 수 있는 여건 조성 즉 특목고 설립 등 이었으며, 잠시 이천시를 떠나 이곳 중국에서 근무하고 있는 이들의 목소리 역시 소중한 이천 시민의 소리가 아닐 수 없다.
- 간담회가 마무리 될 쯤 화제는 자연스럽게 하이닉스가 중국에 기여하는 역할론으로 옮겨갔다. 현재 하이닉스에는 총 3,548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이 가운데 한국본사 파견 직원 403명을 제외한 나머지는 모두 현지인으로써 중국 고용정책에도 크게 기여하고 있단다.
- 특히 하이닉스는 중국의 환경보호운동을 비롯하여 장학사업, 식목활동, 시설 방문 봉사 그리고 지난해 사천성 지진 피해 지역에 대한 봉사활동 등을 적극 전개하여 모범적인 기업윤리를 실천하는 것은 물론이고 우리나라의 國格을 높이는데도 커다란 역할을 하고 있다는 설명에 하이닉스가 절로 자랑스럽게 느껴지는데 이래서 외국을 방문하면 모두가 애국자가 된다고 하나보다.



하이닉스 시찰을 마치고

- 짧은 시간 동안 하이닉스의 시찰과 간담회를 마치고 다음 일정을 위해 버스에 오르면서, 지난 세월 대한민국 정부의 하이닉스 공장 증설 반대에 맞서 우리 의회와 집행부 그리고 시민 모두가 똘똘 뭉쳐 우리의 주장을 관철시키기 위해 노력했던 기억이 클로즈업 되면서,
- 무석시가 하이닉스를 등에 업고 고속 성장을 추구하고 있듯이 앞으로 우리시의 성장과 발전을 위해서는 하이닉스 이천공장의 증설은 물론이고 다양한 기업체 유치에 절실하고 이를 위해 더 많이 노력해야 되겠다는 것을 새삼 되새기면서 다음 일정지로 발걸음을 옮겼다.

□ 2일차 [2010. 10. 17(일)]

- 방문 계획표에 따르면 중국 방문 첫 날은 무석 공항에서 19:30분 북경發 항공기를 탑승하여 21:30분 북경공항에 도착 예정이었으나, 연착 사유를 전혀 알 수 없는 “기다리고 또 마냥 기다려야 하는” 특별한 사유로 인하여 첫 날의 숙소 도착 시간은 새벽 01:05분이 되어서야 가능 했다.
- 21C 들어 미국과 더불어 세계 초강대국으로 떠오르고 있는 중국에서 국내 비행기의 몇 시간 연착은 지극히 정상이라는 말에 한번 놀랐고, 이를 당연시 받아들이는 중국인들의 넓은 이해심(?)에 두 번 놀란다.
- 방문 둘째 날의 공식일정은 08:30분에 북경 흥쿤호텔을 출발하면서 시작되었

으며, 가장 먼저 찾은 곳은 중국 전 지역의 도자기 집합 전시장으로 유명한 민용도자기 예술관이였다.



- 민용도자기 전시장 중 방문단이 가장 오래 동안 머물며 관심 있게 본 120号 (註 전시관에 입주한 상점의 숫자를 의미하는 것으로 보여 짐)에는 우리나라의 고급스러운 생활 도자기와 같은 종류에서부터 전통적으로 붉은색을 좋아하는 중국인들의 기호를 맞추기 위한 작품에 이르기 까지 크기와 색깔이 다양한 도자기들로 구성되어 있어 방문단의 시선을 끌었다
- 우리시 사음동에 소재한 사기막골과 유사한 민용도자기 예술관의 시찰을 마치고 이번 중국 방문의 주요 목적이자 메인 행사인 『제7회 경덕진 국제 도자 박람회』 참관을 위해 북경 공항으로 이동 중 약 1시간의 여유 시간을 이용하여 천안문 광장을 방문하였다.
- 사실 이번 중국 방문 스케줄에는 문화체험 내지는 투어 일정을 일체 포함시키지 않았으며, 오직 도자박람회를 비롯한 중국의 도자세계를 시찰하는 것으로 계획되어 있었으나, 다음 일정을 위한 이동 중 북경 시내를 관통하면서

세계 최대 규모의 도신평광장으로서 중국인의 대륙 정신이 녹아 있는 천안문 광장을 잠시 찾아가기로 한 것이다.



민용도자기 전시장



- 우리나라 뉴스 시간에 중국 소식을 전할 때 자주 등장하는 천안문에는 인민 대회당과 인민영웅기념비 그리고 체비처럼 날렵한 중국 군인이 힘차게 오성 홍기를 게양시키는 국기 게양대가 자리하고 있는데,
- 유독 그날만 인파가 많은 것인지 아니면 평소 주말에도 천안문 광장을 찾는 중국인들이 이리도 많은 것인지 정확히 알 수 없지만 엄청나게 밀려오는 인파를 바라보며 중국이 세계 최대 인구대국이라는 사실을 새삼 다시 한 번 확인해 본다.
- 천안문 광장을 찾은 약 1시간의 퀘도이탈 때문일까? 북경 공항으로 이동 중 비행시간에 쫓겨 결국 점심은 이동하는 버스 안에서 컵 라면으로 대신하게 되었는데 온수 부족으로 인하여 반쯤 익혀 먹는 컵라면의 맛이 그리 썩 좋지는 않았지만 오래 오래 기억에 남을 것 같다.



천안문을 찾은 수많은 중국인들



중국 삼장부에 걸려 있는 모택동의 사진이 저 멀리 보인다

- 이런 노력 덕분이었을까 방문 첫날에 비행기 연착으로 고생했던 것과 달리 북경에서 경덕진으로 출발하는 비행기는 제법 예정 시간을 크게 벗어나지 않았고 약 2시간의 비행 끝에 제7회 국제 도자박람회가 개최되는 경덕진에 도착할 수 있었다.
- 공항 도착 후 곧바로 경덕진시에서 주관하는 환영 만찬장으로 이동하여 먼저 도착해 있던 시장님 일행과 합류하였다. 이 자리에는 경덕진시 관계자와 우리나라의 駐우한(강서성, 호남성, 호북성, 하남성 관할) 총영사관인 엄기성 영사님께서 참석했다.



- 이 자리에서 엄기성 총영사께서는 이천시와 도자문화가 세계적인 수준으로 발전하고 있다는 사실을 익히 잘 알고 있노라고 운을 뗀 후, 자신이 근무하고 있는 영사관 건물 내에 이천을 소개하고 이천 문화를 알릴 수 있는 전시 코너를 설치할 의지가 있음을 언급 하면서,
- 나아가 중국의 駐우한 지역과 이천시와의 정기적인 문화·예술 분야의 교류

를 비롯한 몇 가지 희망 사항을 피력하였는데 매우 고무적인 제안으로 여겨지며, 특히 그는 이 자리에서 이천에 있는 기업들의 중국 진출을 위해 투자단 파견을 희망하기도 했는데 앞으로 우리시에서 전향적으로 검토하여 적극 실현 시켜야 할 부분이 아닌가 생각된다.



경덕진시 관계자의 인사말씀



경덕진시 관계자의 환영인사

□ 3일차 [2010. 10. 19(월)]

- 많은 내외 귀빈들과 수많은 관람객들이 참석한 가운데 제7회 경덕진 국제 도자박람회의 성대한 막이 올랐다. 우리시 도자기 축제와 경덕진 도자박람회의 개막은 크게 다르지 않았지만,
- 경덕진 도자박람회의 가장 특이한 점은 개막식장 단상을 계단식으로 배열하여 마치 중국의 인민대회장 같은 인상을 주었으나 한편으로는 그로인해 식장의 스케일이 제법 국제 규모답다는 생각이 스쳐갔다.
- 개막식을 마치고 전시장을 찾았는데 뜻밖의 반가운 부스가 방문단의 발걸음을 멈추게 만들었는데 다름 아닌 이번 국제 박람회에 참가한 북한 도자기 전시 부스였다.
- 이번에 참여한 많은 국가들의 전시 부스 가운데 우리시에서 설치한 한국관을 제외하고는 통역 없이 유일하게 작품 설명을 들을 수 있는 곳이 북한 부스였고, 좀처럼 접하기 어려운 북한산 도자기를 감상할 수 있는 귀중한 기회였다.



제7회 경덕진 국제 도자 박람회 개막식



○ 북한 부스에는 주로 청자가 전시되어 있었는데 외형상 상당한 수준의 작품으로 보여졌다. 그리고 부스 안에는 『1944년 2월 8일 평안남도 평원군 출생』을 알리는 신현수 도예인의 작품을 전시하고 있었는데 아마도 그는 대한민국 도자 명장처럼 북한을 대표하는 훌륭한 도예인이 아닐까 생각해 본다.



북한 전시관 관계자(맨 가운데)와 함께



북한 전시관 관계자의 설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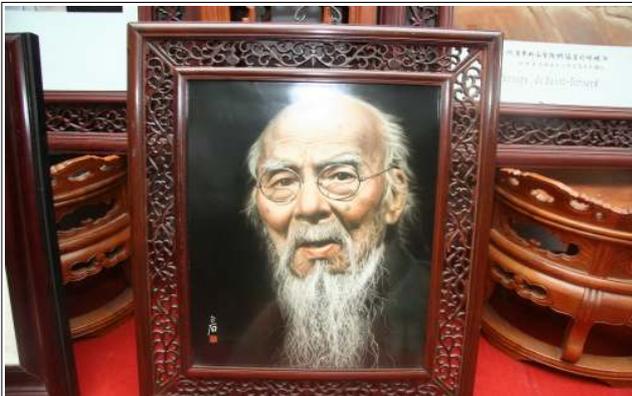


북한 전시관 도자기(1)



북한 전시관 도자기(2)

- 길지 않은 북한 전시관 관람 시간이 못내 아쉬워지만 내년엔 개최될 이천 도자기 축제 때에는 북한을 초청하여 많은 시민들에게 북한산 도자기를 감상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우리시가 남북한 도자 교류의 물꼬를 트는 것도 상당한 의미가 있음을 생각하게 하는 소중한 시간이었다.
- 이번 전시장을 시찰하면서 가장 인상 깊은 것 중 하나가 바로 도자기를 이용하여 인물(人物)이나 풍경을 마치 한 폭의 그림처럼 만들어 놓은 것들이었는데 우리 지역의 도예인들도 한 번쯤 시도해 볼만한 참신한 작품소재가 아닌가 생각되어 적극 권해보고 싶다.



도자기로 만든 인물화(上)와 풍경화(下)



- 프랑스 부스는 세계 패션을 싹 틔우는 국가의 명성답게 도자기를 이용하여 다양한 악세사리를 만들어 전시하고 있었는데 이 때문인지 여성 관람객들의 시선을 집중시켰으며, 독일은 생활자기를 테마로 이번 전시관을 꾸며 놓은 것처럼 고풍스러운 식기가 가는 이의 발길을 잡았다.



도자기 악세사리(프랑스)



생활 도자기(독일)

- 약 3시간에 걸친 제7회 경덕진 도자 박람회의 시찰을 마치고 방문단은 점심 식사 후 잠깐의 휴식 시간도 없이 곧바로 600년 전에 만든 도자 가마가 지금까지 사용되고 있는 고요지(古窯地)를 방문하였는데 이곳에는 중국 정부가 지정한 고요자장 박물관과 도자민속 박물관으로 구성되어 있었다.
- 고요지 시찰을 마친 방문단이 찾은 곳은 경덕진시 도자기 재래시장이었다. 빡빡한 일정을 소화하기 위해 계속되는 강행군에 모두가 피곤 할 법도 한데, 한 번 이라도 더 중국의 도자 문화를 접하고 얻어가기 위해 고군분투하는 모습들이 마치 검투사의 집중된 열정을 연상시킨다.
- 바쁜 3일차 일정을 마무리하고 버스에 오르기 직전, 할머니 한 분이 방문단 모두에게 아주 오래 전 기억을 떠올리게 하는 낯 익은 물건을 팔고 있었는데 다름 아닌 사탕 수수대였다.
- 많지 않은 거스름돈조차 건네받기가 미안할 정도로 행색이 초라한 할머니가 팔고 있는 사탕 수수대를 한 입 베어 먹었는데 그 동안 쌓인 피로가 순식간에 쓰러지는 것처럼 달콤한 맛이 일품이었다.



10분의 忙中閑

□ 4일차 [2010. 10. 19(화)]

- 아침 8:30분에 숙소를 출발하여 약 30분 후 도착 한곳은 이곳 경덕진 도자대학 학생이 만든 다양한 도자 작품들을 대학생들이 직접 판매하고 있는 전시장 이었다.
- 대학생들의 판매 활동은 이번 제7회 경덕진 국제 도자박람회 기간만 이벤트 성 행사로 진행되는 것이 아니라 평상시 매주 토요일은 정기적으로 전시·판매 활동을 펼치고 있는데 이번 국제 도자박람회 기간에는 특별히 평일에도 운영하고 있다고 한다.
- 잘 알다시피 우리시에도 도예고와 도자 관련학과가 있는 청강문화산업대가 있으므로, 축제 등 특정 기간에만 부스를 운영할 것이 아니라 경덕진 도자대학 학생들이 펼치고 있는 이런 정기적인 전시·판매 활동을 도입하는 것도 고려해 보았으면 하는 바람을 갖는다.



경덕진 도자大 학생들의 작품(1)



경덕진 도자大 학생들의 작품(2)

- 경덕진 도자대학 학생들의 부스를 시찰하고 바로 옆에 있는 중국 공예대사로 유명한 류원장 선생의 도자 전시관을 찾았다. 이곳은 2001년 당시 중국 주석이었던 강택민 주석이 방문했던 곳으로서, 전시관이 마치 오래 된 고택처럼 고풍스러운 멋을 뽐내고 있었는데,
- 전시관의 이런 고졸(古拙)한 자연의 멋과 그 안에 있는 여러 가지의 도자기가 함께 어우러져 한층 더 이곳 도자기의 품격을 높여주는 것 같아 아름다운 역사는 하루아침에 만들어지지 않음을 다시 한 번 실감하면서, 아주 먼 훗날 이천의 후손들도 앞서간 선대의 노력으로 이와 같은 멋진 도자 전시관을 갖게 되었노라고 자랑하며 손님을 반길 수 있기를 기대해 본다.



- 방문단은 다른 일정을 위해 류원장 선생의 친절한 환송을 받으며 아쉬운 걸음을 재촉해야 했고, 차량으로 약 30분 이동 후 도착한 곳은 중국의 시대별 도자기를 전시하고 있는 가야도자기 전시관 이었다.
- 짧고 단순한 도예 상식을 갖고 언급하기가 무리겠지만, 현재 많은 이들은 우리나라의 도자기를 이야기 하면 가장 먼저 고려청자와 조선백자를 연상하는

데 이런 이분법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고려 전·중·후기 청자 그리고 조선 전·중·후기 백자 등 보다 세분화된 도자 재현이 있어야 하지 않을까 한다.

- 이런 의미에서 우리나라의 고려 말과 조선 초기의 역사와 궤적을 함께 했던 중국 송나라에서 부터 만주족의 왕조로서 아편전쟁을 겪는 등 격동의 슬픈 역사를 간직하고 있으면서 예전에 국내에서 개봉된 영화 “마지막 황제”에서 비운의 황제 “푸이”의 모습처럼 사라져 간 청나라에 이르기까지 시대별로 도자기를 전시해 놓고 있는 가야도자기의 방문은 매우 뜻 깊은 시찰이었다고 생각된다.



宋(960 ~ 1279) 도자기



元(1271 ~ 1368) 도자기



明(1368 ~ 1644) 도자기



淸(1644 ~ 1912) 도자기

- 중국 도자기의 시대별 전시관으로 깊은 인상을 심어 준 가야도자기 전시관 시찰을 끝으로 경덕진에서의 모든 공식 일정이 끝났다. 북경의 민용도자기 전시관 시찰을 시작으로 이곳 가야도자기 전시관 시찰에 이르기 까지 지난 3일간은 먹고 잠자는 시간을 빼곤 거의 모든 일정을 중국 도자기와의 만남으로 일정이 이루어져 조금은 지루하다는 생각이 들려고 할 때 짧지만 긴 중국 도자 여행이 끝났다.

□ 5일차 [2010. 10. 19(화)]

- 이곳 중국에서의 마지막 밤을 조금 편안하게 휴식을 취하면서 보내고 싶다는 소박한 희망은 구장공항에서 또 다시 비행기 연착으로 인해 여지없이 날아가 버렸다. 일정표상에는 어제 저녁 23:00에 숙소에 도착하는 것으로 계획되어 있었으나, 오늘 새벽 01:30분이 되어서야 방문단은 숙소에 도착할 수 있었다.
- 하지만 5일차의 아침 기상은 오히려 조금 더 일찍 시작되었다. 상해 시내의 원활하지 못한 교통 상황을 감안하고 귀국 비행기 시간을 맞추면서 상해 엑스포를 관람하기 위해서는 선택의 여지가 없었다.
- 평일임에도 불구하고 상해 엑스포 전시장은 관람객들로 인산인해를 이루었다. 방문단 앞에 길게 늘어선 관람객들의 숫자가 조금씩 적어지고 마침내 방문단이 전시장 입구를 통과하여 한국 전시관을 찾았을 때에는 이미 많은 사람들이 한국관 입장을 기다리고 있었다.



입장 순서를 기다리는 수많은 관람객



(한국관 관람을 위해) 저 멀리 보이는 많은 대기자들

- 현지 안내인의 말에 의하면, 이번 상해 엑스포에 참여한 국가는 모두 184개국이며 이 중 한국관은 관람객들 사이에서 인기 순위 2위를 차지하고 있다고 하는데 그 말이 실감날 정도로 많은 관람객들이 한국관의 입장을 기다리고 있었다.
- 방문단은 이번 상해 엑스포에서 한국관을 주도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코트라(KOTRA) 관계자와 잠시 환담의 시간을 가질 수 있었는데, 우리나라는 이번 상해 엑스포에 370억원의 투자를 한 반면,

- 일본 1,800억원, 사우디아라비아 3,800억원을 투자하였다고 한다. 하지만 앞에서 언급했듯이 우리나라는 적은 투자금액으로 관람객들의 선호도에서 2위를 차지할 정도로 투자 대비 최대 효과를 거두고 있다는 설명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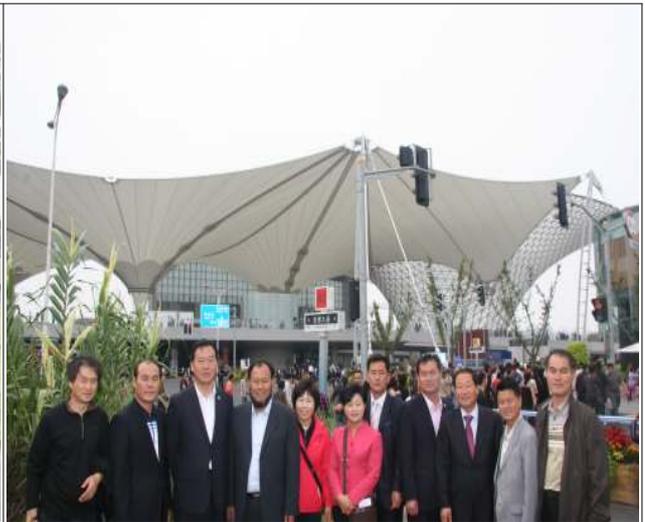


KOTRA 관계자와의 환담



한국 홍보영상을 視聽하는 많은 관람객

- 시간에 쫓겨 더 많은 관람을 할 수 없는 것이 못내 큰 아쉬움으로 다가 왔다. 하지만 비록 짧은 관람 시간이었지만 수많은 중국인과 세계인을 상대로 대한민국의 과학과 문화를 총아(寵兒)로 만들고 있는 코트라 직원들의 역동적인 모습과 한국관을 찾는 수많은 관람객들 속에서 세계로 힘차게 뻗어가고 있는 대한민국의 위상을 확인할 수 있었다.



중국 방문을 마치면서

- 상해 엑스포에서의 한국관 관람을 끝으로 중국에서의 모든 공식 일정이 끝났다. 지난 4박 5일간의 중국 방문을 세계인과 만날 수 있는 상해 엑스포에서 마무리 할 수 있어 이번 방문이 더 빛나지 않았나 생각하며, 2년 후 대한민국 여수시에서 개최될 “2012년 여수 엑스포”의 성공을 기원해 본다.

- 방문단의 제7회 경덕진 세계 도자 박람회 시찰을 위한 이번 중국 방문은 철저히 중국 도자기를 견학하는 것으로 일정이 채워졌으며, 앞서 언급했듯이 이로 인해 조금은 지루한 4박 5일의 중국 방문이 아니었나 싶다.
- 이번 방문에서 중국 도자기 등을 통하여 우리가 배워야 할 내용이라든지 또는 새롭게 도입을 시도해 볼만한 점에 대해서는 이미 제4장 방문내용에서 나름대로 정리가 되었다고 생각되어 후기에선 반복해서 기술하지 않는다.
- 다만 여기에서는 현재 중국의 비약적인 발전의 종착역이 과연 어디가 될지 그들의 교통 문화를 통하여 한번 살펴보고 글을 맺고자 한다.
- 근래 중국의 눈부신 발전에 많은 사람들이 감탄의 찬사를 보내고 있지만, 사실 중국은 우리가 잘 알다시피 인류 문명의 4대 발상지 중 하나인 황하문명을 간직한 나라이며, 일찍이 세계 4대 발명품으로 평가받는 종이, 나침반, 인쇄술 그리고 화약을 만들어 낸 우수한 민족이다.
- 그러니 오늘날 중국의 비약은 어찌 보면 너무나 당연한 일이고, 오히려 얼마 전까지 도광양회(韜光養晦)를 외치며 스스로 자세를 낮추어 온 것이 비정상적으로 여겨진다.
- 어찌되었든 지금의 중국은 깊은 잠에서 서서히 깨어나고 있는 괴력의 홍룡(紅龍)처럼 보여 진다. 하지만 반대편 차선에서 수많은 승용차들이 달려오는 위험한 상황에서 황색 중앙선을 가볍게 무시하면서 유탄하는 그들의 법규 의식에서 중국의 미래가 결코 탄탄대로가 될 수 없다는 생각을 해 본다.
- 법규는 시대를 반영하는 수많은 사람간의 약속이고 지켜야 할 원칙이다. 그 약속과 원칙이 깨진다면 제 아무리 용쓰는 중국이라 할지라도 결코 그들은 최후의 승자로서 세계의 리더가 되기에는 어렵지 않을까?